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 주일'이자 '성소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이라 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주일이고 '성소 주일'이라 하면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일에 하느님의 일꾼을 보태어 달라고 염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생명 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5월의 첫 주일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의 위험성을 깨우치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생명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교회가 이 땅에 더욱 적극적으로 '생명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자는 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화"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문화는 가끔 '죽음'을 지향합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자살을 방조하면서 죽음의 세력은 자라납니다. 사실 이러한 죽음의 문화는 인격을 모독하는 작은 행위,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작은 행위에서 부터 싹이 틉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죽음은 자라게 되고, 인간을 배려하지 않을 때 죽음은 얼굴을 드러냅니다. 결국 "죽음의 문화"는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일련의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화”는 생명을 지향하는 “생명의 문화”와 반대되는 것이며,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문화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베드로는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사도 2,40)라고 타이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세대가 바로 죽음의 문화를 확산하는 세대, 다시 말해 죽음의 문화를 부추기는 죄의 세대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세례는 이러한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에게서 넘쳐 나오는 은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며,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제2독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1베드 2,25)라는 말씀은 타락의 세대를 벗어나 하느님이 마련하신 올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1베드 2,24)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삶을, 더 나아가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물받은 생명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보존하고 우리가 성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요한 10,14)하신 예수성심과 닮은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와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와 관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지속시켜야 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없으면 우리의 좋은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주일이 중요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주일’과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시편23), 다시 말해서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줄 하느님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 주십사고, 오늘 미사 중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련한 이의 염원을 귀기울여 들어 주십니다(시편 34). 아멘.

영해 본당 이희복 미카엘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또한 생명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뤄집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활의 신비를 알려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성소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소명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로 봉헌하고자 하는 사제, 수도 성소를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정성되이 기도하며 이 전례에 임합시다.

입당성가 : 55번 '착하신 목자'

본기도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나라로, 나약한 양 떼인 저희를 이끄시어, 하느님과 함께 천상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41절

안 내 :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메시아로 선포하자 많은 이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묵 상 : 사도들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예수님 죽음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여시어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 베드로 1서 2장 20절-25절

안 내 :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묵 상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이들이 받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의로움을 위해 몸 바치는 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10장 1절-10절

강　　론 :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1-2쪽)

예물준비성가 : 332번 '봉헌'

영성체성가 : 180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영성체 후 묵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이들이 받는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의로움을 위해 몸 바치는 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요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침묵>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시고
당신 곁에 머무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자
오늘도 길을 나서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44번 '성모의 성월'

※ 공소사목 성금

박기섭님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03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3

· 일시 : 5월 8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3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성체분배권 수여 교육

· 일시 : 5월 10일(수) 10:00 - 13: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대상 : 교구 내 성체분배 소임을 수행할 수도자 및 평신도
· 준비물 : 미사도구, 필기도구

■ 대신학생 부모모임

· 일시 : 5월 20일(토) - 21일(주일)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북부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5월 21일(주일) 13:00 - 18:00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5월 22일(월) 15:30 - 23일(화)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신청 : 5월 17일(수)까지 사목국

■ 청소년 축제

· 주제 :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2코린 4,12)
· 일시 : 5월 28일(주일) 09:30 - 17:3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 대상 :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
· 준비물 : 주일 미사 준비, 개인 식수, 운동화
· 회비 : 참가하는 모든 인원(교사, 봉사자 포함) 1인 10,000원(점심 제공)
· 신청 : 5월 15일(월)까지 사목국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14일(부활 제5주일) : 울진 본당 (견진성사)

▣ 2017 수쉬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청년- 5월 13일(토) 14:00
청소년- 5월 14일(주일) 14:00
· 장소 : 서울 길음동 본원
· 문의 : 010-2310-2754, www.sjbp.or.kr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5월 13일(토), 14일(주일) 14:00
· 장소 : 부산 부곡동 본원
· 문의 : 010-9319-1690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피앗 성소모임

· 장소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과천본원
· 일시 : 5월 14일(주일) 14:00
· 문의 : 010-8920-9423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4차 성소 주일 담화

(2017년 5월 7일, 부활 제4주일)

선교를 위한 성령의 이끄심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그리스도인 성소의 두 가지 측면인 "자신에서 벗어나"라는 부르심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관하여 생각해왔습니다. 올해 성소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선교적 차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교를 위한 노력은 그리스도인 삶에 장식품으로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 그 자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며 그분 사랑을 보여 주는 증거자로 이 세상에 파견됩니다.

우리가 나약함을 체험하고 좌절을 느낀다 해도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무능하다는 생각에 짓눌리거나 비관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에 맞갖은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특별히 봉헌 생활에 부름 받은 이와 사제들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라고 기꺼이 응답한 이들입니다.

복음의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힘과 용기를 줍니까? 선교에 힘을 실어 주는 복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의 답을 복음서의 세 가지 장면에서 찾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파견되신 장면에서**,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말씀 전례와 빵을 쪼개는 전례에 앞서는 참된 **길의 전례**를 발견합니다. 이 길의 전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작고,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여도 하느님의 지치시지 않는 활동으로 조용히 계속해서 자랍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기본이 되는 성령의 활동과 지속적인 관상 기도를 통해 성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촉진해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과 이러한 깊은 우정을 맺기를 권유하며 무엇보다도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성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성모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응답하며 기쁘게 길을 떠나 온 세상에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제7차 생명주일 담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의 문화 건설을 위해 제정된 생명주일이 일곱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명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생명의 복음'을 세상 안에서 삶으로 선포하는 백성입니다. 생명주일이 생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생명의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치면서 발표한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에서 인간의 생명이 "죽음의 때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로서 특별한 소명이 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지금까지 맺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피할 수 없지만,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인 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는 사람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명과도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 시행에 앞서 고지한 이 법률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비롯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모든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라는 문서를 통해 미리 자신의 의향을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상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는 환자 자신이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추후 진료 계획을 상의하는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 교회에서 바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주교회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연명의료결정을 돕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생명'에 대한 신앙이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생명 주일을 맞이하여 "죽음이 가까울 때, 그리고 죽는 순간에 생명을 기리고 찬양"(성 요한 바오로 2세)하기 위해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선사받은 생명의 참뜻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생명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017년 5월 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살림터 이야기

아름다운 배려(2)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온탕 속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조금 전의 거스름돈 5천 원 때문에 달아오른 열기는 온탕의 열기를 받으며 오히려 더욱더 달아올랐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묵상을 했다. 묵상 중에 어느 날 잠자리에서 집사람이 하소연하던 일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돈을 분명히 주었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결국은 돈을 두 번 주었다면서 낮에 있었던 일인데도 아직 분이 덜 풀렸는지 그때까지도 씩씩거리고 있었다. 누구나 평생에 한두 번은 물건 값이나 단체 모임의 회비 때문에 실랑이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었다.”, “안 받았다.”고 하면서 갖은 증거를 다 동원하여 실랑이하는 것을 나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이 싸움은 누구나 자신의 기억력을 믿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 양보는 할지 몰라도 진심으로 승복하지는 않는다.

온탕의 열기로 아롱거리는 아지랑이 사이로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들어오셨다. “창피하게 탕 안에는 왜 오셨어요?” 알몸이라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퉁명스럽게 인사를 했다. “야 이놈아, 왜 오기는 왜 왔겠느냐? 네 놈 때문에 왔지!” “제가 왜요?” “네 놈이 카운터와 싸움, 싸움질해서 결국은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주둥이가 석 자는 튀어나온 채 탕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현장을 보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만 원짜리 주는 것도 보셨을 터인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카운터 옆에서 네가 나를 찾기를 학수고대했지만 네 놈이 찾지를 않는데 어찌 도울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안타까운 듯 말씀을 계속하셨다. “네 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입만 벌리면 사랑이니 배려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정작 네 놈 자신은, 달마의 말마따나 네 마음이 바늘 하나 꽂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옹색한 것이더냐? 칼국수 한 그릇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는 단돈 5천 원 때문에 말이다!”라고 호통을 치셨다. 그렇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에게는 사랑이 어떻고, 배려가 어떻고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일을 당했을 때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옹색한 것일까? 이 문제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남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의 문제다. 나의 옹졸했던 행동에 대한 부끄러운 생각이 들자 얼굴이 다시 확 달아올랐다.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그까짓 돈 5천원,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라고 기가 죽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생각 한 번 잘 했다. 요한아! 꼭 돌려주어라, 알았째!” “알았다니까요!”라고 쑥스러워하자 예수님은 신이 나서 “요한아! 5천 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5천 원을 적선하면 하늘나라에 5천만 원이 적립이 된단다. 오늘 네가 대박을 한 건 했구나. 축하한다. 요한아!”라고 하시며 아지랑이 속으로 멀어져 갔다.

부랴부랴 목욕을 대충 마무리하고 카운터로 갔다. 카운터에게 5천 원을 돌려주면서 “이 돈 받아요. 목욕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자매님이 나 보다 훨씬 젊으니 자매님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정말 미안했어요.”라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 “안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 목욕탕을 나와 발걸음도 가볍게 쩔뚝펄뚝거리며 성당으로 가는 등 뒤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요한아, 오늘 성사 잘 보거라! 금방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네 통장에 5천만 원이 막 입금이 되었다고 하더라. 참! 오늘 보속은 이것으로 퉁칠테니까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한다, 요한아!”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니 창공은 오늘따라 더욱 높고 푸른데 3월의 따사로운 햇살이 얼어붙었던 방방곡곡에 부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